

S
2
5

e e J o n
e a s o

g n
세종시
즌



극본/작사 박해민
연출 최종영
제작 김중연/송희진

The First
Great Show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2025.
5.29Thu -
6.15Su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뮤지컬단



INDEX

01 GREETING

사장 안호상
단장 김덕희
극작·작사 박해림
작곡 최종윤
연출 김동연
음악감독 신은경

02 ABOUT THE SHOW 1

서울시뮤지컬단의 정체성과 역할
디자인 스케치

03 CAST

배우소개

04 ABOUT THE SHOW 2

시놉시스
넘버리스트
언제나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를 꿈꾸는 사람들

05 PHOTO

별마당 도서관 프리뷰쇼
연습실 사진
공연 사진

06 INTRODUCTION

주요 창작진 소개
크레딧
서울시뮤지컬단 소개
세종문화회관 소개
세종문화회관 후원회



사장 안호상

여름의 문턱에서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가 세종문화회관 M 씨어터 무대에 오릅니다. 이 특별한 무대에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뮤지컬'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1960년대, 국가적 명령으로 '최초이자 최고의 쇼'를 만들어야 했던 이들의 기상천외한 도전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허구이지만, 그 상상력은 실존했던 시대의 분위기와 한국 최초의 뮤지컬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했던 선배 예술인들의 고민과 열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그들의 발자취에 상상을 덧입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 작품은 코미디라는 장르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낯선 무대, 처음 시도하는 장르, 갖추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인물들의 여정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자 그에 대한 살아 있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웃음 속에 깃든 진심과 도전의 서사는 오늘날 무대 위를 살아가는 모두의 마음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만의 언어와 감각으로 한국 창작뮤지컬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그 축적의 시간 위에서 3년에 걸쳐 개발한 작품으로, 단체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비전을 집약한 결과물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모여 만들어진 이 무대는, 한국 뮤지컬이 품을 수 있는 스펙트럼을 다시 한 번 확장해 보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주신 서울시뮤지컬단 김덕희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작품의 첫 관객이 되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무대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가 여러분께 창작의 기쁨과 무대의 생동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예술의 기억을 환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장 김덕희

그레이트 쇼를 위하여

서울시뮤지컬단은 지난 3년간 총 11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으며 이 중에서 6편의 창작 신작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중에는 성공하여 재공연을 올린 작품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공연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굳이 힘들게 절반 이상의 공연들을 신작 공연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서울시뮤지컬단의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그린악단으로부터 출발했던 서울시뮤지컬단은 대략 64년의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뮤지컬 단체이지만,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변화가 많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책적 요구와 예술계의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단체의 숙명이기는 합니다. 지금의 서울시뮤지컬단이 지향하는 방향은 창작 뮤지컬을 작품 개발을 통해 창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레퍼토리 작품을 구축하며 민간 영역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과감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관객 개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작 공연인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와 연말에 공연할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뮤지컬단의 창작 개발 1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민간과 차별화되지만, 새로운 관객과 완성도를 높인 창작 뮤지컬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1단계가 지나고 2단계부터는 완성된 레퍼토리 공연을 장기 공연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유통을 연계하고 3단계가 되면 해외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펼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작품 개발을 진행했던 작품입니다. 민간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공공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중작기 작품 개발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세종문화회관이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을 표방하면서 이러한 창작 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로 창작 신작의 단계적 작품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소재 선택 및 창작진 구성과 대본, 음악 개발을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낭독 공연을 통해 작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그리고 3년차에 본공연을 올리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넉넉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결국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서울시뮤지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최초의 뮤지컬인 <살짜기 옴서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헤프닝이 있었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최초의 뮤지컬에 대한 쇼코메디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창작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역사로 만드는 것은 너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살짜기 옴서예>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쇼 코미디의 형식으로 구성하고 고증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로 전개하다 보니 자칫 선배님들을 희화화한 것 처럼 오해될까 봐 하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창작진들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당시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시련과 실패를 무릅쓰고 뮤지컬을 만들어오셨는지 그 용기와 노력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뮤지컬이 유래가 없을 정도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뮤지컬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

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배들이 절대로 선배님들의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 최선을 다해 덧붙이며 쌓아 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1960년대 한국에서 뮤지컬을 만드는 좌충우돌의 이야기이면서, 이 작품은 뮤지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연의 가사에는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뮤지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뮤지컬을 하게 되었을까? 뮤지컬을 왜 좋아하지? 뮤지컬을 왜 보는 걸까?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뮤지컬에 대한 생각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 걸까요?

안호상 사장님과 본부장님, 제작1팀 팀장님 및 커뮤니케이션팀, 극장 운영팀, 무대 팀, DX팀, 의상 소품실 그리고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의 작가, 작곡가, 공동 연출, 음악감독, 무대감독, 디자이너, 제작스태프, 크루분들 그리고 서울시뮤지컬단 모든 단원들, 객원 앙상블, 형균과 창용 배우, 연주자님들 그리고 기획 피디, 홍보 피디, 제작 피디, 마케터, 드라마터그, 보컬코치, 총무, 반주자 그리고 사진, 영상, 홍보, 마케팅 등 이 작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의 '그레이트 쇼'를 위하여!



극작·작사 박해림

작은 시작, 위대한 엉망진창.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울고 웃으며 듣다가 한 번쯤 무대 위에 올려 보자는 마음에서 이 작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다급하고 무모한 시작,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해보자”는 그분들의 열정과 용기가 그 고단하고 순수한 움직임이 어찌면 지금의 나태한 저를 책상 앞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시절과는 다르고, 여기 담긴 에피소드와 사건들도 어느 정도 각색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한없이 웃기고도 가슴 뭉클한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될 수 없었던 아웃사이드이자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대 뒤에서 허둥대고, 실수하고, 때론 주저앉았다가, 그러면서도 결국 무대 위로 올라가 서로에게 ‘그레이트(Great)’이라는 말을 건네게 된 사람들. 이 작품은 그런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 그 힘으로 저는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서 왔으니깐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무대 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간절히 바랐던 이 장면 속에서 관객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이, 누군가의 처음이자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는 것에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저기 파도가 보이시나요?

이 여정에 함께 올라탔으니, 이제 우당탕탕 가보시죠.

그리고 부디, 오늘의 공연도 여러분에게 '그레이트'하길.

감사합니다.



작곡 **최종윤**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한국 뮤지컬의 시작을 상상력으로 되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장르를 처음 시도해 보는 사람들, 좌충우돌 끝에 무대에 조명을 밝히려는 이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저 역시 자연스럽게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근본과 뿌리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며 '내가 이 장르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익숙한 선율과 장면들이 저를 뮤지컬을 처음 좋아하게 만든 그 감정으로 데려갔고, 그 시간의 설렘을 담아 곡을 쓰고자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러 모티브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오래도록 제가 사랑해 온 작품들에 대한 동경과 존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선배 작곡가들의 표현 방식을 해석하고, 그것을 새롭게 조명하며 이야기에 기능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관객 여러분이 그 연결을 발견하며 웃거나 감탄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작업의 큰 기쁨입니다.

작업을 하며 저는 '과거를 경유해 현재에 닿는' 창작의 길 위에서, 이전 세대가 남긴 언어들을 경청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끌어오며, 그 위에 저만의 이야기를 엮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뮤지컬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상 장난기 어린 표현과 과장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속에 담긴 위트와 애정을 너그럽게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손끝으로나마 이 장르를 향한 애정을 담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명작을 통해 이 길을 먼저 열어 주신
역사 속 뮤지컬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무대를 통해
뮤지컬이 가진 자유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출 김동연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성장하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물론 가상의 설정이고 창작된 스토리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뮤지컬을 사랑했던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연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뛰어난 동료들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작진, 배우, 디자이너, 기술 스태프들, 기획, 홍보 등 컴퍼니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작품은 만들어집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미디와 쇼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기에 제가 해결하기엔 어려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송희진 공동 연출이 안무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반적인 부분을 진두지휘하며 만들어 나가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같이 한 많은 작품에서 안무뿐만 아니라 연출적인 부분까지 의지해 작업을 해왔기에 어렵게 느껴지던 이 작품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송희진 공동 연출 겸 안무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항상 처음 선보이는 작품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가 선보이는 뮤지컬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뮤지컬이 탄생하는 순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감독 **신은경**

서울시뮤지컬단 <더 퍼스트 그레이트쇼> 본 공연 준비를 위한 리딩 공연을 한 차례 준비하였습니다. 드라마와 넘버의 전반적인 시연을 통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덕션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우분들의 음역대, 톤을 미리 이해하고 작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작뮤지컬을 개발하고 공연화 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끝까지 고민의 시간을 안겨줍니다. 배우, 스텝, 회사 프로덕션 모든 분들과 이 작품이 관객에게 다가갔을 때 웃음을 선물하는 공연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음악 파트 최종윤 작곡가님을 중심으로 이동희 편곡가, 이하영, 김지희 음악 조감독의 꼼꼼하고 음악적인 섬세함이 뮤지컬 코미디 장르에 적합한 센스들로 여러분들의 웃음 버튼이 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그린부터 시작해 한국뮤지컬과 함께 성장해온 서울시뮤지컬단의 정체성, 역할

“그래서 이 쇼의 제목은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대단한.. 씬땡 뉴..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입니다.”

뮤지컬 평론가
최승연

서울시뮤지컬단의 2025년 신작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2025. 5. 29.~6. 15.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의 마지막 대사다. 이 자기 반영적 대사는 서울시뮤지컬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는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서울시뮤지컬단의 전신인 1960년대 초 예그린악단 탄생 당시를 좌충우돌 코미디로 다룬다. 뮤지컬 창·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없던 시절 ‘완전히 새롭고 알려진 적 없는’ 공연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예그린악단의 상황이 대사에 녹아 있다.

하지만 예그린악단의 정체성은 ‘대단한(great)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목표에 더욱 견인되어 있었다. 예그린악단은 창립(1961) 이후 해체, 부활, 체제 개선, 축소, 확대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립가무단(1973), 국립예그린예술단(1977), 서울시립가무단(1978), 서울시뮤지컬단(1999~현재)으로 역사와 역량을 이어오는 동안 관 단체로 존립하기 위한 명분이 끊임없이 필요했다.

이는 예그린악단의 시작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예그린악단은 1961년 오일기업상사 문화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세력이었던 김종필과 장태화에 의해 탄생되었다. '옛과 어제를 그리며 내일을 위한다'는 예그린악단은 전통을 현대화한다는 기치 아래 민족예술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내세웠다. 이것은 곧 '정부 위의 비밀 정부'로 존재했던 중앙정보부 초대 부장이었던 김종필의 뜻이었고 예그린악단 존립의 명분이기도 했다. '민족음악 전통의 대중화', '퇴폐적이고 이질적인 외래음악의 일소', '문화재건의 전위으로서 주체적인 가무 양식 개발'은 군사정권의 문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한편으로 예그린악단의 예술적 순수성을 관념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당시 예그린악단 기획실장이었던 연출가 이원경은 「동아일보」의 「민족예술 수립의 시기」라는 글에서 "미국에서 연극이 침체해가는 것을 구출해보고자 대사 대신 음악을 삽입하는 한낱 궁여지책인 '브로드웨이'의 '뮤우지컬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가적 어젠다는 예그린악단이 1972년 문화공보부로 이전되며 산하 단체인 국립가무단으로 변신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김종필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운명을 같이 하던 예그린악단은 민간에서 국가 단체로 전환되며 '뮤지컬을 청신하게 토착화'하고 '국제화'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갖게 되었다. 국립가무단으로 존속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관료적 제약에서 벗어나 단체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 1977년 '국립예그린예술단'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타협하며 관 단체로서 명맥을 이어갔다. 명칭에서 '예그린'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저속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음악과 무용, 그리고 활

달한 기상, 단합된 합창이 사회 기풍 진작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문화 공보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공공성과 대중성 사이

국립에그린예술단은 1978년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함으로써 세종 문화회관 산하로 편입, 서울시립가무단으로 다시 한번 변화한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서울시립가무단은 그동안의 독주 체제에서 벗어나 여러 민간 뮤지컬 단체와 공존하게 되면서 레퍼토리의 변화를 도모했다. 전통과 고전, 새마을운동과 근대화 같은 국가주의 담론의 창작 뮤지컬에 국한하지 않고 <돈키호테>, <지붕 위의 바이올린>, <환타스틱스>와 같은 브로드웨이 명작도 레퍼토리에 포함시켰다. 이의일(1991~1996), 이종훈(1996~2001) 단장부터는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머털도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글북> 등의 아동 뮤지컬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는 유희성 단장(2006~2010) 시절 <애니>가 고정 레퍼토리로 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한편, 이종훈 단장은 1999년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전환을 계기로 명칭을 서울시뮤지컬단으로 바꿈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리했다.

하지만 서울시뮤지컬단의 성과는 '공공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고전 소재의 뮤지컬을 대형으로 기획하여 국책 사업(national project)에 환류시켰던 박만규 단장(1984~1991) 시절 작업이 핵심이었다. 분단 40년 만에 이루어진 첫 민간인 교류 프로젝트인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서울시립가무

단을 주력 단원으로 포함시켜 공연을 완료했으며, <양반전>을 대표 레퍼토리로 만들어 86아시안게임 문화축전 공연, 1987년 미국서부 연안 순회공연, 1991년 일본순회공연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 문화축전에 선보일 '한국적 뮤지컬'을 개발하고 해외교포를 위문하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유희성 단장 시절 일본 긴가토 극단과의 문화예술교류공연으로 기획된 한일 합작 뮤지컬 <침묵의 소리> 역시 국제교류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였다.

K-뮤지컬의 시대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서울시뮤지컬단은 이렇듯 항상 이중적인 과제 앞에 놓여 있었다. 국가적 목적과 공공성을 위해 '새롭고 대단한 것'을 해야 했으나 동시에 대중성을 잃지 않아야 했다. 1966년 예그린악단이 재기하면서 내세웠던 목표와 이념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전통적인 민속예술의 모든 형태를 계승·현대화하고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민족적 종합무대예술의 새 영역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국제화를 성취하는 것. 재기 이후 첫 작품이었던 <살짜기 읍서예>(1966)는 이러한 목표가 구체화된 성공적 모델이었다. 당시의 관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수위에서 전통을 현대화한 '한국적 뮤지컬'의 전범이었다.

여기서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는 약 60년 전의 작품을 언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살짜기 읍서예>가 보여준 '한국적 뮤지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한국 뮤지컬 역사의 기층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공공성의 이념과 상징이 되어 왔다.

1960년대 민족과 전통의 시대를 지나 1970년대의 명랑과 건전,

1980년대의 질서와 화합, 1990년대 대중과 세계화, 2000년대 이후의 한류와 동시대성은 '한국적 뮤지컬'의 개념을 형성하며 역사를 만들어왔다. 서울시뮤지컬단의 역사는 이 흐름을 선도하거나 당위로 끌어안는 전체 흐름 안에 언제나 놓여 있었다.

둘째, <살짜기 읊서예> 당시 추구되었던 '국제화' 기획은 2025년 현재 'K-뮤지컬'로 실현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년 전 예그린악단은 국내 공연만으로 뮤지컬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 해외의 유명한 '흥행사'를 계속 초빙하여 방법론을 개발하고 '한국적 고유한 멋'을 풍기는 작품으로 해외시장을 누비게 될 날을 꿈꿨다.

그 꿈은 이후 실행된 민관의 다양한 국제교류와 창작 뮤지컬 활성화 방안 안에 힘입어 한국의 뮤지컬을 세계에 수출하는 현재에 실현되고 있다. 현재 김덕희 단장의 창작 프로젝트 개발 방안은 서울시뮤지컬단이 K-뮤지컬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든다.

한국적 뮤지컬 확산의 동시대적 방법론은 아마도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대디자인 박상봉



의상디자인 김지연



부장 & 군경, 중앙정보부 직원



유덕환 실장

김영웅 연출

의상디자인 김지연



윤지연 작가



강길운(케이-드레폰) 작곡가



윤마리



여남주 (오페라)



김흥 (트로트)



왕꽃님 (무당)



금소리 (소리꾼)



석만수 (수장구)



뮤지컬 < 이순신 >

의상디자인 김지연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뮤지컬'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60년대, 첫 무대를 만들어가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의상 콘셉트는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되,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극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과 군경은 60년대 후반의 정형화된 군복과 검정 정장을 통해 권위적이고 통제된 사회 분위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딱딱하고 단정한 이들의 스타일은 극 중 긴장과 억압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배우·연출·작가·작곡가 등 공연을 만드는 인물들은 1960~70년대 초반의 유행 실루엣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과 코미디적 과장을 더 해 개성과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강렬한 색감과 유쾌한 디테일은 창작자들의 열정과 혼란, 그리고 예술에 대한 애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작품 속 극중극의 무대 의상은 조선 시대 복식과 현대적 요소가 혼합된 판타지 스타일로 구성되었습니다. 속곳, 바구니 등 일상 소품을 활용해 제작된 장신구와 소도구들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연을 완성해가는 인물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이 경험한 창작의 기쁨과 해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극중극 의상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없는' 그레이트한 옷들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무수한 제약 속에서도 공연을 완성해 내는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열정을, 의상을 통해 시각화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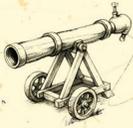
의상디자인 김지연

늘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공연을 완성해 가는 스태프로서, 이번 작업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 속 인물들에게 깊이 공감했고, 그들의 '위대한' 순간들이 진심으로 당기를 바랍니다.

소품디자인 노주연



<도끼>



대포



<장미>



<거북이>



이 작품을 계기로 아직도 어렵지만 한 이 과정들을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내는 과정 과정이 아름답고 멋있는 그레이트 쇼임을 깨달으면서 나도 무대 위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배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공연 기간이지만 짧지 않은 시간 공들여 만든 이 공연을 재밌게 즐기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라스트 그레이트 쇼를 만드는 그날까지 화이팅.

유덕한 실장 役

박성훈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다시, 봄>,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극장 앞 독립군>, <베니스의 상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외

영화 <수리남>, <데시벨>, <그것만이 내 세상>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동백꽃 필 무렵>, <미스터 션샤인>, <시그널>, <멜로가 체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불어라 미풍아>, <호구의 사랑>

유덕한 실장 役

이창용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스윙 데이즈_암호명A>, <시데레우스>, <레베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물랑루즈!>, <번지점프를 하다>, <개와 고양이의 시간>, <비틀쥬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외

연극 <얼음>, <꽃의 비밀>, <올드 위키드 송>

영화 <오피스>

김영웅 연출 役

이승재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더 트라이브>,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원더보이>, <포미니츠>,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베르테르> 외 다수

김영웅 연출 役

조형균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라이카>, <시라노>, <하데스타운>, <더데빌:파우스트>, <더데빌:에덴>, <곤 투모로우>, <빠리빵집>,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이프 덴> 외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 <독친>

방송

<팬텀싱어 2>

수상

제8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올해의 배우상
제4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남자주연상

윤지영 작가 役

서유진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더 트라이브>,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파리넬리>, <콘서트 살리에르> 외

강길룡 작곡가 役

김범준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더 트라이브>, <알로하, 나의 엄마들>, <원더보이>,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극장 앞 독립군>, <베니스의 상인>,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외











유덕한 실장 役

박성훈



유덕한 실장 役

이창용



김영웅 연출 役

이승재



김영웅 연출 役

조형균



윤마리 役 **정은영**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원더보이>,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금란방>

수상 2016 동아뮤지컬 콩쿠르 장려상
2015 뮤지컬페스티벌 금상
2008 전국청소년가요제 대상(경기도지사상)



여남주 役 **이경준**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극장 앞 독립군>, <베니스의 상인>, <브라보 마이 러브> 외



김흥 役 **한일경**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다시, 봄>,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극장 앞 독립군>, <베니스의 상인>, <브라보 마이 러브>, <밀사>, <균> 외



금소리 役 **박정아**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다시, 봄>,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 아씨들>, <애니>, <베니스의 상인>, <균>,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투란도>, <태양의 노래>, <침묵의 소리>,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외



왕꽃님 역 **왕은숙**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다시, 봄>,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 아씨들>, <애니>,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밀사>, <서울 1983>, <균> 외



석만수 역 **박원진**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밀사> 외

영화 <숨도 다소 높음>, <소리꾼>, <튼튼이의 모험>, <다영씨>

연극 <누란누란>, <식사>, <달과 골짜기>, <반성문, 살인 기억>, <고향마을>,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 <고향 마을>, <7년동안 하지 못한 말>



중앙정보부장 역 **허도영**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 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만덕>, <베니스의 상인>, <애니>,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사운드 오브 뮤직>, <밀사> 외

수상 제6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 '남우신인상'

양상블



권명현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다시, 봄>,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 아씨들>, <조선 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밀사>, <서울 1983>, <사랑해 톤즈> 외



오성림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다시, 봄>,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극장 앞 독립군> 외
연출 <외할머니댁에서의 여름방학>, <열정콘서트>, <한반도 평화 음악회> 외
안무 <썸머콘서트 꿈, 꿈, 꿈>, <오페레타 코러스>, <스크루지> 외



임승연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다시, 봄>,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 아씨들>, <조선 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밀사>, <서울의 달> 외



이신미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다시, 봄>,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 아씨들>, <조선 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브라보 마이 러브>, <광화문연가>, <밀사>, <서울 1983> 외



신대성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맥베스>, <더 트라이브>,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애니>, <극장 앞 독립군>, <베니스의 상인>, <브라보 마이 러브> 외



이연경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맥베스>, <더 트라이브>, <알로하, 나의 엄마들>,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극장 앞 독립군>, <베니스의 상인> 외

음원 영화<하모니> OST Danny Boy, Solveig's Song



이혜란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잇 쇼>, <맥베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원더보이>, <지붕위의 바이올린>, <작은아씨들>, <조선삼총사>, <애니>, <브로드웨이 42번가>, <Christmas Carol>, <록키호러쇼> 외

앨범 케이걸즈 미니앨범 <Not bad>
케이걸즈 싱글앨범 <Fly High>

수상 2011 미스코리아 경남 진

콘서트 뮤지컬 토크 콘서트 집들이 - perfect10



김경일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드라큘라>, <메피스토>, <잭더리퍼>, <엘리자벳> 외



임상희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노트르담 드 파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림자를 판 사나이>, <킹아더>



이용준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마타하리>, <영웅>, <레베카>, <베토벤>, <미세스 아웃파이어> 외



박주희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더 쇼! 신라>, <더 쇼! 신라하다>

Synopsis

“이건 예술인가? 코미디인가? 국가적 대참사인가?”

1960년대, 한 통의 명령이 떨어진다.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을 능가하는 엄청난 공연을 만들어라!”

이 거창한 임무를 맡게 된 건 중앙정보부 문화예술혁명분과의 존재감 없는 실장. 하지만 실수로 유명 연출가가 아닌, 동명이인 초짜 배우를 섭외해 버렸다!

줄지에 작품을 맡게 된 초짜 연출은 급히 떠나온 극단의 경리 담당을 작가로 끌어들이고, 실장은 오페라 가수, 무당, 풍물패, 트로트 가수 까지 온갖 예술가들을 모은다.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대~단한 썸땡 뉴 코리안 쇼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검열, 상부의 즉흥 개입, 황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습실은 점점 대혼란에 빠지는데...

과연 이들은 국가의 명령과 예술의 열정 사이에서
전설의 첫 번째 뮤지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Number list

- M1.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대단한 씬땡 뉴 코리안 쇼_전체
- M2. 예술적으로_유덕한 실장, 김영웅 연출
- M3. 그게 바로 뮤지컬이니가요_김영웅 연출, 윤지영 작가, 앙상블
- M4. 각하의 마음_유덕한 실장
- M5. 바람아 불어라_윤마리, 앙상블
- M6. 임파서블_유덕한 실장, 윤지영 작가, 김영웅 연출, 강길룡 작곡가
- M7. 백성을 위한 길_석만수(문익점), 목화 앙상블
- M8. Tap with 정치후원자_여남주, 김영웅 연출
- M9. 내자리_김영웅 연출
- M10. 해피엔딩으로 간다_전체
- M11. 눈에 보이지 않는 것_유덕한 실장, 김영웅 연출, 중앙정보부장, 군경들
- M12. 결정해 줘_김영웅 연출, 전체
- M13. 갑자기 음악이 흐르는 순간_윤지영 작가, 강길룡 작곡가
- M14. 수상해_여남주, 전체
- M15. 내 자리 rep._유덕한 실장
- M16. 예술적으로 rep._유덕한 실장, 김영웅 연출
- M17. 임파서블 rep._전체
- M18. 그게 바로 뮤지컬이니가요 rep. _전체

프로덕션 노트

: 언제나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를 꿈꾸는 사람들

정리: 서울시뮤지컬단 드라마터그 박슬기

1960년대 '예그린악단'의 <살짜기 오페라>는 흔히 한국 뮤지컬의 '더 퍼스트(the first)'이자 '그레이트(great)'한 '쇼(show)'로 회자됩니다. 오늘날 '더 퍼스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살짜기 오페라>가 당시로서는 가장 '그레이트'한 규모와 완성도,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얻어낸 '쇼'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그린악단의 심장에서 태어난 서울시뮤지컬단은 <살짜기 오페라>처럼 '그레이트'한 '쇼'를 꿈꿨던 '더 퍼스트'들의 시도가 어땠을지를 상상하는 것에서 이 창작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의 형태가 갖추어지기까지, 그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춤과 노래와 연기를 모두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때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뮤지컬, 무지컬, 뮤직칼 등 용어 표기도 정확지 않았지만, 이것이 한국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직감했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대에 오르는 단 한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진심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를 기록한 문헌과 단편적인 정보, 참고 자료를 들여다보며 그 시절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작업은 무척 흥미로

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같은 꿈을 상상하던 날들이 차곡 차곡 쌓이고 어느새 우리 역시 그들처럼 '그레이트'한 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상의 시작

이 공연은 단지 한 편의 뮤지컬을 만들어낸 과정이 아니라, 우리 단체의 역사를 탐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종대극장 뮤지컬을 기획한다는 건, 규모 있는 서사와 그것을 감당할 무대적 상상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시뮤지컬단 내부에서는 한동안 어떤 이야기가 극장을 채울 수 있을지를 두고 깊은 탐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제작 방식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고민했습니다. 공공단체의 예산 구조상 대부분의 작업이 단연도 사업으로 기획되기에, 작품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에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년 개발 모델'을 상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1년 차에는 대본과 음악 개발, 2년 차에는 리딩 및 낭독 공연을 통한 점검과 수정, 그리고 3년 차에 본 공연을 올린다면 창작 뮤지컬 초연이 가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세종문화회관과 창작진의 지지 덕분에 이 작품은 이른 시점에 출발선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단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공립 뮤지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고, 그 역사성과 정통성에 비해 대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최초의 뮤지컬로 거론되는 <살짜기 오피서예> 역시 서울시뮤지컬단의 전신인 '예그린악단'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단체의 정체성과 한국 뮤지컬사의 기원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체가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물과 실존 단체, 공연명을 전면에 내세운 서사를 구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살짜기 오피서예>와 관련해 사실관계 왜곡이나 명예훼손 문제 등 본래의 의도와 달리 우려되는 지점들이 시작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을 출발점으로 하되, 완전히 가상의 작품과 인물로 구성하자"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 최초의 뮤지컬을 만든다'는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등장하는 인물, 단체, 그리고 쇼는 가상의 이야기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에 무엇보다 남기고 싶은 사실은, 서울시뮤지컬단이 스스로의 뿌리를 환기하는 동시에 관객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 뮤지컬 시장 안에서 4,6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960~70년대 뮤지컬 불모지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시도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뮤지컬은 아직도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적 뮤지컬의 가능성과 그 잠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 유일의 뮤지컬 전문단체인 예그린예술단은 십수 년간
이 가능성과 잠재성에 매달려 어려운 작업을 해왔다.¹

뮤지컬 장르에 대한 지원이나 인지도가 충분치 않았던 시절에도 열정과 상상력으로 구축한 이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 중이며, 그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 장르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판타지로 가는 지도, 대본과 음악 그리고 연출

하나의 뮤지컬을 만든다는 것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만들고, 때로는 그 길을 잃는 과정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대학로에서 서울시뮤지컬단은 박해림 작가, 최종윤 작곡가, 김동연 연출과 만나 작품 소재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며,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라는 여정을 위한 가장 첫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트리트먼트 구상, 대본 개발, 작곡 작업을 통해 우리의 지도는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고, 2024

¹ 「이달의 주역들-예그린예술단 <이런 사람>」, 『월간 국립극장』, 6월호, 1977, 4쪽.

년 6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된 내부 워크숍은 그 지도에 첫 실제 경로를 그려 넣은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연출 컨셉 공유, 대본 분석, 합창곡 중심의 음악 연습을 통해 이 작품이 어떤 정서로, 어떤 리듬으로 관객에게 닿을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후 배역이 확정되고, 캐릭터의 개성과 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대본 리딩과 음악 연습 속에서 작품의 골격이 다져지고, 서사의 리듬과 감정의 지형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2024년 7월 16일, 내부 낭독 공연과 전문가 합평회를 통해 우리는 이 지도가 관객의 눈에도 어떻게 읽히는지를 점검하는 첫 외부 검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9월, 11월, 그리고 2025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창작진 회의와 대본 수정, 그리고 낭독 당시 미완성이었던 'M3. 그게 바로 뮤지컬'의 완성 및 여러 곡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대사나 넘버의 다듬기가 아니라, 이 작품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정비하고 재확인하는 내밀한 탐색의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소재 제안이라는 한 점에서 출발해 첫 무대에 오르는 2025년 5월 29일까지. 805일에 걸친 이 여정은 단 하나의 설계를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 길을 잃고, 질문하고, 수정해 가며 그려낸 판타지로 가는 지도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연습!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창작의 묘미지요!”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의 첫 연습 장면에서 연출이 던지는 이 한마디는 우리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낭독 공연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개발해 왔지만, 막상 본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무대가 준비되고, 배우들이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창작은 마치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즐거운 대사, 더 좋은 넘버, 더 정확한 움직임과 직관적인 대형, 한 마디로 더 좋은 작품을 위해 창작진과 배우들은 매일같이 작품을 자르고, 깎고, 다렸습니다. 어떤 날은 박장대소로, 어떤 날은 침묵으로 장면이 완성됐고, 그중 상당수는 부서지기를 반복하다가 새로운 구조로 엮여 나왔습니다.

공연의 연습은 단순히 리허설이 아니라 우리가 왜 무대에 올라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렇게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가 완성될 때마다, 우리 역시 이 공연을 점점 더 '우리의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연습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만든 '퍼스트 그레이트 쇼'였는지도 모릅니다.

'코미디'를 위한 가장 정교한 장치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쇼를 만드는 이야기'를 공연의 중심 서사로 삼는 극중극 구조를 기반으로, 무대 안에서 다시 무대를 만들고, 배우는 극중 인물이자 동시에 극 외적 존재로 기능합니다. '이순신(오페라)' 장면 속 "절반은 글도 모르고 절반은 훈련도 받지 못한 군사"

라는 대사는 뮤지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군분투하는 공연팀의 현실을 뼈뺏았고, 이러한 허구와 현실의 교차는 공연 전반에 걸쳐 배우와 인물, 현실과 극 사이의 경계를 유연하게 흐리며 관객을 그 경계선 위로 초대합니다. 여기에 “이게 뮤지컬이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무조건 해피엔딩일 테니까.”와 같은 대사는 배우들이 잠시 극의 서사를 멈추고 현재 상황을 자각하는 메타적 발화로 작용하며, 이 공연이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가 아니라 ‘공연이라는 장르 자체’를 말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드러냅니다.

뮤지컬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이 공연이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쩌면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본도 어설프고, 장르도 헛갈리고,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이 공연은 해피엔딩이어야만 한다”는 말은, 이들이 ‘공연’이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뮤지컬이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 무대 위에서 화해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 돌아오며,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즉, 해피엔딩은 장르적 클리셰이기 전에 무대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어설프고 엉망이어도 결국 무대가 ‘그들의 자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작품이 펼쳐 보이는 무대의 풍경은 순수한 상상이라기보다, 전후 폐허 속에서 악극단과 유랑극단이 등장하고 트로트, 판소리, 무속, 오페라가 한 무대에 오르던 시절의 혼종적 감각, 그리고 ‘피바다 가극단’을 능가하라는 정치적 요구를 통해 당시의 사회가 뮤지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공연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모든 형식과 장치는 결국,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장르인 '코미디'를 위한 정교한 토대가 됩니다. 웃음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처럼 복잡한 구조와 예민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닌 진심과 야심을 동시에 증명합니다.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우리가 무심코 소비해 온 '쇼'와 '연기'라는 언어가 과연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되묻고, 공연이야말로 현실을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게 표현하는 방식임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간다!

현실도 벅차고 하루하루가 충분히 힘든데, 무대 위 이야기마저 눈물만 뿜아낸다면 우리도, 관객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는 처음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웃게 하자. 끝은 환하게 열자.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간다. 이 공연은 그 결말을 믿고 달려온 창작자들과 어설피도 무대에 서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뮤지컬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허겁지겁 시작한 이 쇼가 결국 어떻게든 웃음을 안고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무대 위의 사람들도, 무대 밖의 우리도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웃고 싶은 관객분들에게 이 무대가 잠깐의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은, 관객이 웃는 그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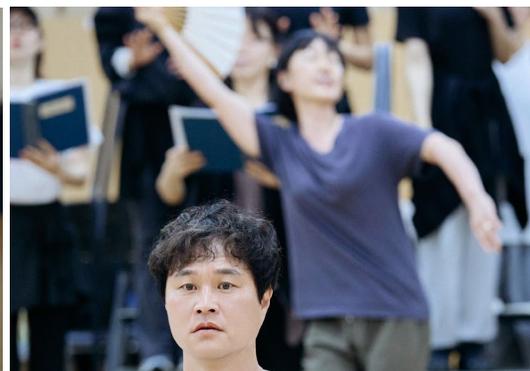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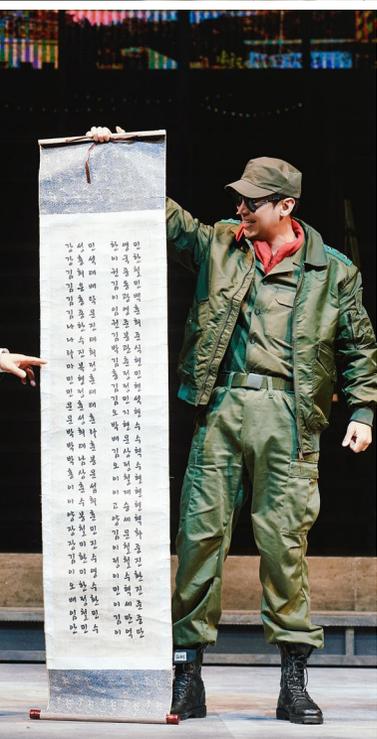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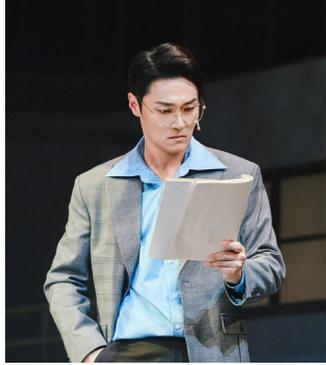




















예술감독 **김덕희**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맥베스>, <다시, 봄>, <더 트라이브>, <알로하, 나의 엄마들>, <다윈 영의 악의 기원>, <굳빠이, 이상>, <금란방>, <신과 함께_이승편>, <운동주, 달을 쏘다> 외
- 연극** <노래하듯이 햄릿>, <앨리스 프로젝트>, <숲, 속, 한, 밤>
- 가족극** <하루이야기>, <또채비 놀음놀이>, <커다란 책 속 이야기가 고슬고슬>, <할머니의 그림자 상자>

극작·작사 **박해림**

- 뮤지컬** <모리스>, <미생>, <부치하난>, <사랑의 불시착>, <메리셀리>, <나빌레라>, <이토록 보통의>, <금란방>, <전설의 리틀농구단>,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외

작곡 **최종운**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마리퀴리>, <곤 투모로우> 외

편곡 **이동희**

- 편곡** <신카이 마코토 재난3부작 필름콘서트>, <류이치 사카모토 영화OST 콘서트>, <오케스트라 드림랜드_디즈니&픽사> 외

연출 김동연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시라노>, <데스노트>, <신과 함께_저승편>, <미세스 다웃파이어>, <난쟁이들>,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어쩌면 해피엔딩>, <그레이트 코멧>, <인사이드 윌리엄> 외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터칭 더 보이즈>, <환상동화>, <알 앤 제이>, <킹스 스피치>

공동연출, 안무 송희진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데스노트>, <미세스 다웃파이어>, <시데레우스>, <더 테일 에이프릴 폴스>, <난쟁이들>, <뱀파이어 아더>, <어쩌면 해피엔딩>, <해적>, <인사이드 윌리엄>,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외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환상동화>, <알 앤 제이>, <킬미나우> 외

음악감독 신은경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랭보>, <천 개의 파랑>, <겨울나그네> <킹아더>, <더 데빌>, <검은 사제들>, <호프>, <마리퀴리>, <신과 함께 -저승편> 외

무대디자인 박상봉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더 테일 에이프릴 폴스>, <난설>

연극 <헤다가블러>, <단명소녀 투쟁기>, <동백당>, <구미식>, <바닷마을 다이어리>, <우리읍내>, <지상의 여자들>, <햄릿>, <고목>, <벚꽃동산>

조명디자인 **최보운**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접변>, <더 테일 에이프릴 폴스>, <웨이스티드>, <곧빠이 이상>
- 연극** <헤다가블러>, <구미식>, <세일즈맨의 죽음>, <붉은낙엽>, <사일런트 스카이>, <지상의 여자들>, <사운드 인사이드>, <햄릿>, <고목>, <알앤제이> 외

영상디자인 **박 준**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시티 오브 엔젤>, <피맛골 연가>, <해를 품은 달>, <드라큘라>, <드림걸즈>, <뉴시즈>, <도리안 그레이>, <나폴레옹>, <셜록홈즈1,2>, <모래시계>, <광화문 연가>, <미세스다웃파이어> 외
-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운현궁 오라버니>, <당통의 죽음>, <둥둥 낙랑동>, <봄날> 외
- 멀티 미디어 쇼** <에버랜드 쥬크박스>, <ITU 전권회의 개막주제공연>, <2015 중앙미디어 컨퍼런스> 외
- 오페라** <나부코>, <아이다>, <루살카>, <토스카> 외
- 무용극** <강선영>, <불멸의 춤>, <아름다운 조우>, <미롱>, <춘향> 외
- 수상** 2019 한국뮤지컬어워즈 무대예술상 수상

음향디자인 **한문규**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하트셉수트>, <미스터 산타클로스>, <윌리엄셰익스피어: 납의 깃털>, <스윙데이즈 암호명 A>,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클로버>, <글루미선데이>, <미남당> 외

의상디자이너 **김지연**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운동주 달을 쏘다>, <영웅>, <천개의 파랑>, <파과>, <렌트>, <다윈영의 악의 기원>, <나빌레라> 외
- 연극** <구미식>, <통소소리>, <활화산>, <햄릿>, <바냐 아저씨>, <터키행진곡> 외
- 오페라** <1945>, <맥베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마술피리>, <리골렛토> 외 다수
- 창극** <소춘대유희>, <명색이 아프레걸>, <코카서스의 백묵원>, <미디어> 외
- 무용** <나레>, <WORK>, <임인진연>, <오>, <처용 나레회>, <YARD: 야드> 외
- 국악** <광대>
- 수상** 2014년 제 51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07년 제 44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기술상

분장디자이너 **백지영**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천개의 파랑>, <파리넬리>, <신과 함께-저승편>, <알로하, 나의 엄마들>, <어린왕자>, <리지>, <나빌레라>, <빈센트 반 고흐> 외
- 연극** <창작공감: 작가- 모든>, <햄릿>, <연안지대>, <벗꽃동산>, <고도를 기다리며>, <튜링머신>, <이 불안한 집> 외
- 창극** <단테의 신곡>, <장화홍련>, <명색이 아프레걸>, <베니스의 상인>

소품디자이너 **노주연**

-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라이카>, <너의 결혼식>, <라파치니의 정원>, <베르테르>, <구텐버그>, <부치하난>, <벤자민 버튼>, <멤피스>, <비아 에어 메일> 외
- 연극** <헤다 가블러>, <시련>, <십이야>, <톡톡>, <맥베스>, <탱크/0-24>, <이 불안한 집>, <헤르츨클란>, <빈센트 리버> 외

INSTRUMENTALISTS

첼로 - 캐나다 왕립음악원,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졸업
박소진 - 슈투트가르트필하모니, 프라이부르크필하모니 객원 단원, Argo Ensemble Orchestra, Freien Philharmonie Stuttgart 수석 역임,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원필 오케스트라, 코리안 내셔널필 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뮤지컬 <디어에반한슨>, <리지>, <고스트베이커리>, <라이카>

클라리넷, 색소폰 경기예술고 졸업, 한양대 졸업

최진훈 서울대학교 관악 콩쿨 색소폰부문 1등
 경희대학교 관악 콩쿨 목관부문 2등
 한전아트폴센터 콩쿨 1등
 음악교육신문사 콩쿨 1등
 학생음악협회 콩쿨 색소폰부문 1등
 음평 콩쿨 관악부문 대학부 1등

성남 윈드 오케스트라 객원
 문화가 있는날 "청춘마이크" 추천권
 청주시립교향악단 객원 연주
 KBS관현악단 열린음악회 객원 연주

뮤지컬 <시카고>, <헤어스프레이>

드럼 **뮤지컬** <캣츠>, <풋루즈>, <아가씨와건달들>, <설록홈즈>, <더데빌>, <년센스>, <년센스잼보리>, <컴퍼니>, <조지엠코헨>, <샤우트>, <여신님이 보고계셔> 외

기타 **녹음 및 라이브세션** <디아길레프>, <비더슈탄트>, <킹아더>, <팬레터>, <아몬드>, <이프덴>, <빠리빵집>, <다시, 봄>, <겨울나그네>, <천개의 파랑> 외

베이스 서울예술대학 98학번 Bass 전공
남정훈

*** 라이브세션**

뮤지컬 <겨울나그네>, <스페셜파이브>, <아몬드>, <팬레터>, <코드네임>, <더 워치>, <더 데빌>, <조선귀족>, <설록홈즈: 블러드 게임>, <색즉시공> 외

콘서트 <신해철 추모 콘서트- 에피톤 프로젝트>, <서울시뮤지컬단 갈라 콘서트>, <로기수 콘서트>, <조형균 콘서트 홈그라운드>, <신은경 음악감독 단독 콘서트>, <JYP 전국 투어 콘서트>, <이기찬 콘서트>, <뮤지컬 배우 박강현 콘서트>, <뮤지컬 배우 송용진 20주년 콘서트>, <김조한 TIMELINE> 외

*** 녹음세션**

간미연 <하얀마음> 싱글, 브라운 아이드 소울 <할 수 있어> 싱글, 김건우 <singing in the rain>, 려욱 <사랑이라는 건> 싱글, 뮤지컬 <빠리빵집> 녹음, ReRE <I still love>, 소년 소녀 연애하다 OST <어긋나다>, 정인 <문득 사랑해>, 에피톤프로젝트 <기차> 앨범 녹음, 이기찬 <원룸> 외

*** 음악 감독**

하하와 별 <하트 브레이크 마켓>, 문세윤의 <고독한 미식퀴즈>, 하선호 영어라디오, 내가 사랑하는 배우들

*** 발매앨범**

남정훈 솔로 앨범 <안녕 잘가>, BAND Rockettree E.P <좋아해>, BAND Rockettree 디지털 싱글 <2호>, BAND Rockettree 디지털 싱글 <1호>, BAND Rockettree E.P, BAND Rockettree 김형중 <best & last> 앨범 편곡 & 피쳐링, BAND Rockettree <알로하루오바>, BAND Rockettree 1집, BAND Rockettree single, 영화 <창피해> 음악감독 외

CREATIVE TEAM

예술감독	김덕희
극작·작사	박해림
작곡	최종윤
편곡	이동희 최종윤
연출	김동연 송희진
안무	송희진
음악감독	신은경
조연출	장한순
안무조감독	한연주
음악조감독	이하영
음악조감독	김지희
기획PD	박향미
홍보PD	신동준
제작PD	권보라
마케팅	윤서영
컴퍼니매니저	염희수
보컬코치	정준
연습반주	이민정
드라마터그	박슬기
무대감독	이민재
무대조감독	허한중
무대팀원	서종민 오창우 강대성 지강현 강호준
무대디자이너	박상봉
어시스턴트	오의재

CREATIVE TEAM

무대제작	엠에스 스테이지(대표 김미성)
조명	
조명디자인	최보운
조명조감독	서승희
조명오퍼레이터	정찬영
조명팔로우	이한별 김벼리
조명팀원	신희 홍유진 정우원 한성민
조명장비	Wiz light(위즈라이트)
음향	사운드 얼라이언스
음향디자인	한문규
음향협력디자인	양석호
음향오퍼레이터	손주희
시스템엔지니어	김예린
RF엔지니어	양정인
사운드크루	최아영 오의석 서유덕 유동경 박혜송
음향장비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한문규)
영상	
디자인 및 장비렌탈	MOCA Studio
영상디자이너	박준
시스템 슈퍼바이저	이광룡
프로그래머	이호빈
오퍼레이터	조은솔
시스템엔지니어	박민준 김강일

CREATIVE TEAM

콘텐츠 디자인	강태영 정현경 차석민 서지은
LED System	(주)프라임미디어
의상 제작	유니스(EUNICE)
의상디자인	김지연
의상어시스턴트	김선아(팀장), 오세현
의상감독	변미라 천지연
의상스태프	황창숙 백송희 박규민
분장디자인	백지영
분장팀장	이선화
분장팀원	고혜진 허보람 오하나 이유미 임이윤
소품	
소품디자인	노주연
소품어시스턴트	배현아
소품 팀원	박영주 김아영
소품 크루	김규림
밴드	
키보드1	이하영
키보드2	김지희
드럼	조득연
베이스	남정훈
	이수형(데퓨티)

CREATIVE TEAM

기타	남세훈
	이주호(데퓨티)
클라리넷/색소폰	최진훈
첼로	박소진
녹음	
레코딩	신은경(2789SOUND)
바이올린	서영완
트럼펫	정상수
트럼본	서울
기타	남세훈
MIDI Programming	이동희
악기렌탈	극동악기렌트(대표 김휘태)
홍보/마케팅 대행	탄탄대로
대표	조아람
매니저	이다은 김규리
사원	박수린 김유나
CREATIVE PARTNER	
그래픽 디자인	디자인SNR
스튜디오 사진	김윤희
무대 사진	김윤희
홍보영상	컴퍼니엠 박동준
스튜디오촬영 스타일리스트	천유경
홍보촬영 헤어메이크업	백지영

CREATIVE TEAM

티켓매니지먼트 클립서비스(주)

DIRECTOR 우아영

TICKET TEAM MANAGER 김세민

TICKET MANAGER 김은지

배우 매니지먼트

(주)이음 엔터테인먼트 (조형균 배우)

대표 박성혁

실장 백예리

지도강사

장구 강사 안대천

탭댄스 강사 권오환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ER

서울시뮤지컬단

한국 뮤지컬의 살아있는 역사

서울시뮤지컬단은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해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입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1961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뮤지컬 단체로 창작극을 개발해 창작뮤지컬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가족 뮤지컬을 선보이며 문화예술 관객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1961년 한국 전통예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뮤지컬을 도입한 예그린악단을 모태로 서울시가무단, 1972년 국립가무단, 1977년 서울시립가무단을 거쳐 1999년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계기로 현재 명칭인 서울시뮤지컬단이 되었습니다. 1985년 남북적십자 예술단 교류공연, 1987년 88올림픽문화예술사절단 미국 순회공연, 1988년 88올림픽 문화예술축전공연, 2009년 한일문화예술교류공연 등에 참여해 세계무대에 우리 문화예술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돈키호테>, <판타스틱스>, <포기와 베스>, <지붕위의 바이올린> 등 외국 뮤지컬과 <살짜기읍서예>, <성춘향>, <양반전> 등 한국적 소재의 작품을 비롯해 <한네>, <빅토르 최>, <춤추는 도시> 등 다양한 소재의 창작극을 공연해왔습니다. 한국뮤지컬대상에서 1998년 <한네>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무대미술상, 남우조연상 수상, 1999년 <피갈호의 결혼>으로 연출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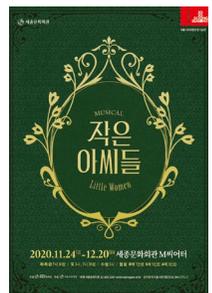
봉위의 바이올린>으로 안무상, 여우신인상 수상, 2007년<애니>로 기술(음향)상, 베스트외국뮤지컬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뮤지컬 <투란도>로 연출상, 음악상 수상,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2017년 <밀사>로 남자신인상을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창작뮤지컬 <작은아씨들>로 한국뮤지컬어워드에서 2020년 대상, 극본, 작곡상 부문, 2022년 극본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창단 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지봉위의 바이올린>으로 한국뮤지컬어워드 연출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최근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작은아씨들>, <원더보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 등 다양한 소재의 창작뮤지컬을 개발해 창작뮤지컬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글북>, <애니>와 같은 가족 뮤지컬을 비롯해 <다시, 봄>으로 중장년 관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뮤지컬단은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외국 뮤지컬을 소개하는 등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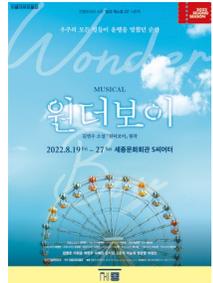


뮤지컬단 주요연혁

- 1961 살짜기 읍서예
- 1962 5월의 찬가 / 여름밤의 꿈 / 추석놀이
- 1963 흥부와 놀부
- 1967 살짜기 읍서예
- 1968 꽃님이꽃님이꽃님이
- 1971 대춘향전
- 1974 시집가는 날
- 1976 돈키호테
- 1977 이런 사람
- 1980 환타스틱스
- 1981 우리들의 축제/허생전
- 1982 나 어딴소?
- 1984 포기와 베스 / 성춘향
- 1985 평양방문 예술단 공연 / 지붕위의 바이올린
- 1986 양반전
- 1987 나는야 호랑나비
- 1988 용이 나리샤 / 태양처럼
- 1990 고향의 민들레
- 1993 가스펠
- 1994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 1995 머털도사
- 1996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1997 정글북 / 한네
- 1998 피가로의 결혼
- 1999 킬리만자로의 표범
- 2000 신라의 달밤 / 어린왕자
- 2002 피터팬 / 웨스트사이드스토리
- 2003 아가씨와 건달들
- 2006 애니
- 2007 달려라하니
- 2008 소나기 / 오즈의 마법사



- 2009 침묵의 소리
- 2010 태양의 노래
- 2011 투란도
- 2012 밥 짓는 시인 퍼 주는 사람
- 2013 균
- 2015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 서울 1983
- 2016 서울의 달
- 2017 밀사 / 광화문연가
- 2018 브라보 마이 러브 / 애니
- 2019 베니스의 상인 / 애니
- 2020 작은아씨들
- 2021 지붕위의 바이올린 / 작은아씨들
- 2022 지붕위의 바이올린 / 원더보이 /
다시, 봄 / 알로하, 나의 엄마들
- 2023 다시, 봄 / 알로하, 나의 엄마들 / 맥베스
- 2024 더 트라이브 / 다시, 봄 / 맥베스
- 2025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재)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공연제작1팀

팀장 구자윤
팀원 권진철 박향미 김민
최성신 박지환 조휘영
문혜리 배영주 신동준
박선미

공연장운영팀

팀장 김지민
팀원 강보경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김지성
구지휴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김예지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서민원 김정
박정길 전혜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행정 민제희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화영
팀원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세종문화회관 후원회

세종문화회관 후원회 임원진

회장	구자겸
명예회장	김동건
수석부회장	최우영, 한재동
부회장	구자은, 금한태, 박효상, 성태홍, 이형주, 황인규
감사	이성문, 이진태
사무총장	최진우

법인회원

•금강회원

하나금융지주
KB국민은행

•설악회원

대한상공회의소
(주)더북컴퍼니
케이엔솔(주)
(주)유진기업
금호덴탈제약(주)
(주)삼구아이앤씨
(주)맥서브
CNCITY에너지

•태백회원

(주)태웅로직스

•월악회원

(주)이디야커피
(주)이음프라이빗에쿼티
진영공업(주)

•북악회원

(재)실로암공원묘원
(재)정헌재단

(주)KJC Corp.
(주)린나이코리아
(주)석문에너지
(주)HY
(주)SAC
(주)SG세계물산
(주)이엠케이뮤지컬컴퍼니
코리아리재보험(주)
(주)큐이디
텔코웨어
(주)퓨처캡티바리더십그룹
(재)용인공원묘원
더존비즈온
(주)크라운해태홀딩스

개인회원

•소나무회원

김동건 김주경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매화회원

구자겸 유수경 (주)케이엔솔 대표
한재동 이정숙 (주)태웅로직스 회장

•철쭉회원

김준한 김경미 신세계토건 회장
이성문 배미자 (주)성일 회장

•난초회원

구자은 홍채원 피아니스트,
프렌즈오브뮤직 음악감독
구자희 한선희 법무법인 단천 대표변호사
김두희 한국피아노복원연구소 대표
김성수 前 KBS 편성본부장
김성진 조지숙 유업자산개발 전문
김연주 임석민 BCS Asset Consulting 세무사

김의정 이승원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인수 박명희 선문 그린 사이언스(주) 회장
 김인숙 (주)나라홀딩스 명예회장
 박기태 (주)동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혁성 조순옥 우리들 자연학교 이사장
 배한경 노미숙 해조음 국악연주단
 성태홍 동아공업(주) 사장
 송은경 백태진 이우트레이딩 부사장
 안경태 원태희 前 삼일회계법인 회장
 유승빈 이춘희 양지 진흥개발(주) 회장
 유재성 김경영 사야문화재단 이사장
 이기남 이철성 (재)원암문화재단 이사장
 이세웅 김명자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
 조용준 (주)태웅로직스 사장
 최진우 안여진 JW&PARTNERS 대표변호사

•국화회원

강화자 베세토오페라단장
 강효주 필립강갤러리 대표
 고승철 소설가
 권은순 D&S PROJECT 대표
 김광선 (주)사세 대표이사
 김남수 (주)플랜티넷 사외이사
 김덕표 (주)앤비전 대표이사
 김말애 前 경희대학교 교수
 김상백 Imperial College London 교수
 김영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영우 삼성시티 대표
 김옥숙 상운의료재단 이사장
 김용신 TM Korea 대표
 김용재 명지종합개발(주) 대표
 김유석 트로닉스 대표
 김윤경 주부
 김일웅 나노엑스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김재혁 前 중앙일보 대표
 김주원 김주원 법률사무소 대표
 김중애 代 조미진 퓨처캡티바리더십그룹 대표
 김지우 前 부국증권 전문
 김진우 (주)투마로 대표

김태환 명지대학교 교수
 박정표 (주)리브리스 대표이사
 반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병일 (주)원우이엔지 대표이사
 서석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심태보 (주)심무역상사 사장
 안종만 박영사 대표
 이만교 태온알루미늄(주) 대표이사
 이상권 케이엠씨산업(주) 대표이사
 이시창 (주)국도화학 대표이사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종구 이종구 심장내과 원장
 이종현 (주)하닉스 바이오파마 대표이사
 이희숙 주부
 임진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용열 (주)서복상사 회장
 정태호 (주)베스트웨딩넷 대표이사
 조경희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최광철 前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 위원장
 최병인 이지스센터프라이즈(주) 대표이사
 최용원 삼원관광개발(주) 회장
 한현석 서울아이알네트워크(주) 대표이사
 허 방 (주)한백인더스트리즈 대표이사
 홍성준 (주)비즈랩 대표
 홍성의 태웅로직스 사외이사
 홍승우 모빌토크(주) 대표이사
 홍철환 대화컴퓨터 대표

•대나무회원

강창수 (주)캠럭스 대표이사
 고 건 前 국무총리
 고종태 리젠시에셋(주) 대표
 곽동석 (주)이음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구자엽 LS전선 회장
 김 원 삼양사 부회장
 김동연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김명제 NISCO 회장
 김민수 삼성벤처투자 부사장

김상태	(주)ADT 대표이사	전 호	(주)세전예건 대표이사
김설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대원	(주)보고엔텍 대표
김억수	세종예술기획 대표	조기종	前 천안상록리조트 사장
김용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병규	블루파인 대표이사
김정식	(주)은유조경 대표이사	조영준	다이앤 디 인터내셔널 대표
김종선	세방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조정목	대한주정판매(주) 대표 이사
김진철	해성산업 대표	최재범	(주)GK엔지니어링 부회장
김희경	수원대학교 교수	최점락	(주)주어링 대표
나동현	(주)내포그린에너지 대표이사	하석주	롯데건설 고문
남은경	kpo 명강사협회 전문강사	한봉수	비전E&C 대표
문 희	백상재단 이사장	허창성	진선출판 주식회사 회장
문석진	前 서대문구청장	홍성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아카데미원장
박동호	前 (재)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소영	리얼인문학 대표		
박세원	약사		
박영준	(주)타바론코리아 대표이사		
박우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윤기	YK박윤기피부과의원 원장		
박종우	함부르크수드 코리아 사장		
박종우	송정회계법인 부대표		
배준연	새한인터파이낸스 대표		
서영일	신한은행 본부장		
서우택	어센틱금융그룹 부회장		
양수화	글로리아오페라단 단장		
오세훈	서울시장		
윤차웅	지우토건 주식회사 대표		
이기원	(주)플라스캠 대표		
이명호	삿뽀로 대표		
이병근	前 신한은행 지점장		
이승배	상명대학교 교수		
이완근	신성이엔지 회장		
이응상	에스엠코어 대표이사		
이종호	PPI PIPE(주) 회장		
이청승	(사)창조한국 이사장		
이현철	애드프로페셔널 대표이사		
이형재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상무		
임복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임희필	(주)신진아이앤씨 부사장		
장세권	장원병원 원장		

MUSICAL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

THE FIRST GREAT SHOW



2025.
5.29Thu —
6.15Su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